

생애사적 방법으로 탐색한 경력 도슨트의 과학전시해설 전문성 연구

이정화^{1,*} · 박영신²

¹국립광주과학관, 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²조선대학교 지구과학교육,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A Case Study of Experienced Docent's Expertise in Science Exhibit Interpretation Using a Life History Approach

Jung-Hwa Lee^{1,*} and Young-Shin Park²

¹Gwangju National Science Museum, Gwangju 500-480, Korea
²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how one woman became a science docent's expert and how she developed expertise in her field of work as a docent in science museum. A life history approach,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employed in this study. A docent Ms. Park, had her career as a docent for eight years and she was selected through the procedures as follows. The 1st phase of selection, the researcher contacted 56 docents who were working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n the 2nd phase of selection, 11 of them were then selected on purpose for further study. Finally docent Paek was selected as a case for this study on the basis of her responses to survey questions and interviews as well as h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ainly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docents' artifacts. We analyzed data to reveal Ms-Park's life history of how she became a docent, how her work was as a docent, and what efforts she made to become an expert as a docent of science museum.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ocent Park demonstrated strong educational beliefs that influenced her field work, as the beliefs have continuously been formed throughout her life experiences. Second, she acquired and organized her practical knowledge of exhibit interpretation through real activities and experiences interacting with visitors and demonstrating exhibits in science museums. Third, docent Park showed her ability to make full use of surroundings and resources available for developing her expertise on exhibit interpretation more effectively. With these findings in mind, we suggest that a well established docent system as well as its operation, and physical support be needed for increased docents' expertise and meaningful education in science museum

Keywords: informal science education, docent's expertise, a life history study, practical knowledge

요약: 본 연구는 과학관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8년간 도슨트 활동을 지속한 박 도슨트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생애사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박 도슨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적표집, 편의표집을 통해 56명의 도슨트를 선정, 2단계 심화연구 수락자를 기준으로 목적표집을 통해 11명의 도슨트를 선정했다.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과 심층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 적극적인 1인을 3단계 목적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주로 면담을 실시하고 참여관찰과 문서 등의 수집 분석을 통해 박 도슨트가 어떻게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도슨트 활동은 어떠한지, 도슨트 전문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을 생애사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 도슨트는 교육적 신념이 투철하며 이는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이

*Corresponding author: chounghwa@naver.com
Tel: +82-62-960-6123

무엇보다도 도슨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박 도슨트는 활동을 통해서 전시해설에 관한 실천적 지식이 형성 및 체계화 되고 있었다. 셋째, 박 도슨트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전시해설을 위한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구축 및 운영과 도슨트 활동에 따른 지원 및 구축은 과학관에서의 도슨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주요어: 비형식 과학교육, 도슨트, 생애사적 연구, 실천적 지식

서 론

과거 과학관은 단순히 수집품을 전시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체험실 설치 및 전시에 그쳤지만 근래 과학관은 과학관에 대한 일반대중 및 학생들의 높아지는 교육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위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관은 학생들이 과학을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eong et al., 2010; Osborne and Dillon, 2007; Rennie et al., 2003). 이에 맞춰 국내외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관에 관한 연구도 과학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의 접근에서 교육적 활용 및 인식 재고를 위한 논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과학관에 관한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과학관 건립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세계 각국의 박물관 창설과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유럽에선 이미 18세기에 박물관의 수집물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자연사박물관의 교육적 접근이 시작되었던(Lee et al., 2004)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 및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An et al., 1993)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관 전시물에 관한 특징 및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수적으로 많은 전시물들이 더 이상 좋은 박물관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으로(Shin and Lee, 2003) 과학관 전시물의 교육적인 관점과 관람객의 관심도와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전시물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로써 과학관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 체험적인 요소를 결합한 표본 자료, 각종 모형과 그

림이 적절히 어우러진 설명 자료를 제시하여 전시커뮤니케이션 효과 증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Song, 2010). 셋째, 과학관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풍부한 학습 자료에 대해 만족을 보이고 현장학습이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 또한 과학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활동지를 겸한 현장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높은 흥미와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Yoon, 2008; Jeung, 2003). 넷째, 과학관의 교육적 효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과학관의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교 과학수업의 보조 자료로 과학관의 전시물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일환으로 즉, 교실 외 과학수업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Kim and Kim, 2005; Kim, 2004; Lee et al., 2004; Choi et al., 2006). 다섯째, 과학관 전시물 교육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강구에 대한 연구이다. 설립 초창기부터 과학관의 전시물에 관한 교육은 전시물 앞에 놓인 패널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 즉 전시물명(한국명, 영문명), 화학기호(광물 전시물 등에), 출처 등으로 전시물 설명을 같음 했는데, 최근 들어 전시물 설명을 교육의 한 분야로 보면서 전시해설사 즉, 도슨트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 되고 있다(Park and Lee, 2011). 우선, 선호하는 전시물 교육방법과 비선호하는 전시물 교육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은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방식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해되었다는 응답(Kim and Song, 2003)을 보였고, 과학관 관람 방식의 선호도에서는 도우미가 안내를 해주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게 되었다(Chang and Choi, 2006; Cox-Peterson et al., 2003).

위 같이 국내 과학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점차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관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슨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도슨트는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과 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일반자원봉사자와는 다른 교육적 마인드를 갖고 교육을 실행하는 전문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도슨트가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Bac(2006)는 교사 및 박물관 학예사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교육과정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 Jo(2006)는 전문인력(교사 및 학예사 등) 활용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여 과학관의 전시물 교육을 위한 인력으로 자원봉사자 형태로 육성하여 박물관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관람객에 있어서는 전시물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Park and Lee(2011)는 도슨트의 발전 방향으로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 및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도슨트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도슨트의 순기능 역할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슨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슨트를 조망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도슨트 관점을 통해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합의점 및 협의를 알아내기 위해 bottom-up의 접근 방향을(van Driel et al., 2001) 취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슨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력 도슨트를 대상으로 생애에 걸쳐 전문화 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 도슨트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관련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슨트 활동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은 무엇인가?
2. 도슨트 활동을 통해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3.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4. 도슨트 양성교육과정·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가 비행식기관의 교육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시해설에 따른 교수 전략을 발휘하기 위한 도슨트의 신념은 어떠한고, 도슨트로 활동하기 위해 받게 되는 양성교

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도슨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여 전문가로서 도슨트의 충분조건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전문가로서 도슨트의 완성이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즉, 유년시절 삶의 경험 및 환경의 영향과 도슨트 활동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이 도슨트가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노하우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생애사적 접근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도슨트 활동을 8년간 해온 박 도슨트로 박 도슨트 선정을 위해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Fig. 1). 1단계(목적표집, 편의표집)에서는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대도시 소재 국립과학관 2개관, 공립과학관 1개관, 중소도시 소재 공립과학관 1개관으로 총 4개관을 선정하여 4개 기관을 통해 도슨트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① 도슨트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 ②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③ 도슨트 전문연수, ④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보상, ⑤ 도슨트의 실질적인 교수활동, ⑥ 도슨트 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6개 대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은 5-6개의 작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수율은 56%이고 설문지에 응답한 도슨트는 56명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 기관에 소속된 도슨트였음을 밝혀준다. 2단계(목적표집)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56명을 대상으로 차후 인터뷰나 본인의 도슨트 활동과 관련하여 심화연구를 할 때 참석여부에 동의한 응답자 중 학예사 및 담당자가 꾸준히 활동하는 자로 추천하거나 다양한 곳에서 도슨트 활동의 경험이 있는 자로 11명을 선정하였다. 3단계(목적표집)에서는 본 연구에 적합한 1인을 선정하기 위해 2단계에서 선정된 11명의 도슨트를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여 1단계 설문응답을 기초로 약 20분간의 개인면담 및 3-4명씩 그룹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E-mail)을 통해 본 연구의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위 과정을 거쳐 선정된 1인 박 도슨트는 동기부여가 강하고 도슨트 활동에 열정을 가지면서 수년간 도슨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본 연구에 적극적인 호응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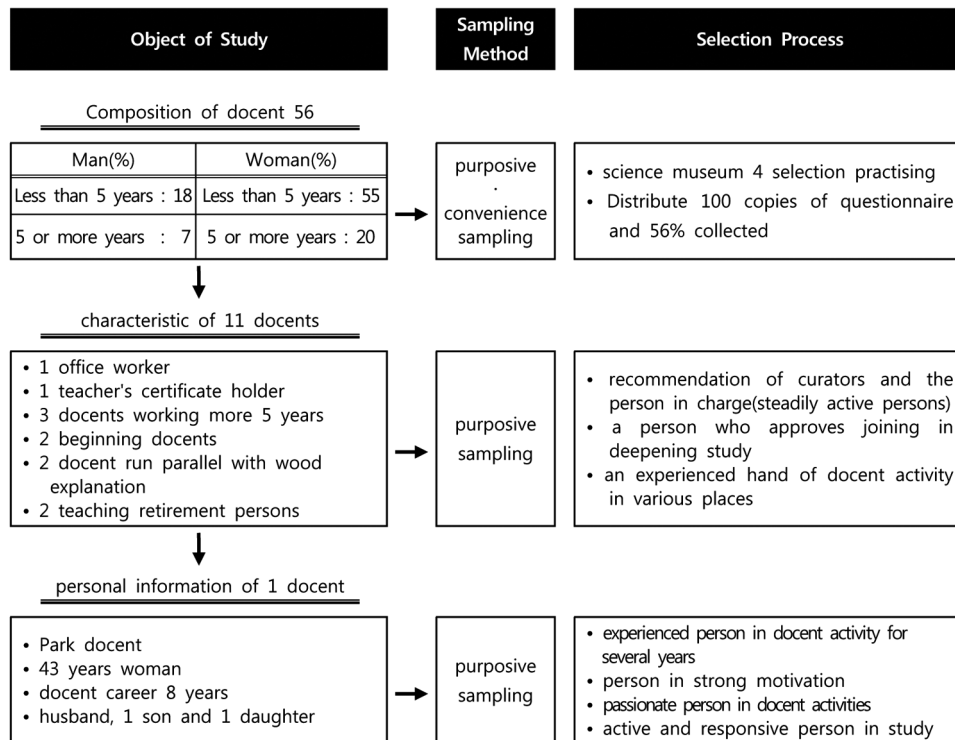


Fig. 1. The process of participant selection in study.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2010년도부터 약 13개월 동안 3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는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초기 분석을 하였다. 그 후 면담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연구를 깊이 하였으며 2차에서는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참여자의 동료 도슨트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시 수업관찰이 동시에 이루어 졌다. 1, 2차 면담을 통해 자료의 범주를 확장하고 구조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이론적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동

료 도슨트 10인, 학예사 및 담당자 5인,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Table 1). 위 같이 본 연구의 질적자료 수집은 면담을 중심으로 참여관찰, 문서자료, 현장노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Table 1).

수집된 자료는 두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첫 번째, 영역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여 내용별로 연구주체의 영역을 찾아 나갔다. 연구주체의 영역은 도슨트 이전의 문화, 도슨트 문화, 앞으로의 도슨트 문화로 구분되었다.

Table 1. The resources for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interview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k docent: 11 times, about 14 hours • 2 curators and 3 people in charge of docents, 1 science education expert, 10 colleague docents: total 20 times about 10 hours • fieldnote of interview
teaching observation material	• S science museum • O museum • I science museum • fieldnote of teaching observation
Park docent material	• training materials • contest presentations
internet collect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received and given with researcher • internet blog • docent internet cafe
science museum publication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ent education process materials • docent deepening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materials • museum · science museum year books, leaflets

이 때 누락된 정보는 다음 면담에서 보완되도록 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전화 및 이메일(E-mail)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편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 이메일(E-mail),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료의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다. 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 이메일(E-mail),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의 수집된 자료들 간의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 자료에 연구주제 제목을 정하였고, 이러한 절차의 반복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의 영역주제를 정하였다. 두 번째, 분류분석을 하기 위하여 자료의 분류체계는 앞서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영역을 기초로 영역들의 일부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제목(도슨트 이전 생애사적 경험, 도슨트 활동을 위한 지식, 전시해설의 전략, 도슨트 전문성, 선배 도슨트 역할, 도슨트 양성교육·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대분류 제목(도슨트 입문에 대한 신념,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 전문가로서의 도슨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된 원자료를 심도 깊게 읽고, 분석,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 각 자료들이 가진 의미를 연구 문제와 관련시켜 나갔다. 이러한 해석과정으로 연구 문제와 관련해 박 도슨트의 도슨트 활동에 대한 신념,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 및 전시해설의 전략, 도슨트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 보강 되어야 할 도슨트 양성교육과정·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을 알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 이론적 타당성, 삼각측정법, 연구 참여자 검토, 전문가 및 동료연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전이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심층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도슨트의 순기능 역할이 좀 더 체계적이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력 도슨트를 대상으로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통해 생애에 걸쳐 전문화 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 도슨트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시한 인터뷰 및 보충자료에서 파악된 결과를 연구문제 즉, 첫째, 도슨트 활동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 둘째, 도슨트 활동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 셋째,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 방안 넷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 순서로 기술하였다.

도슨트 활동 이전의 생애사적 경험

한 인간이 완성되기까지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 영향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 도슨트 또한 유년시절부터 결혼이후 겪게 되는 경험이 도슨트의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도슨트에 입문하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박 도슨트의 활동 동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박 도슨트의 유년시절 가정환경에서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께서 옛날에 동네 봉사란 봉사는 다 했거든요? 대통령상까지 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상타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대통령상 타느라고 가정에 소홀했으니까”라는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상처럼 행해지는 부모님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을 보면서 박 도슨트는 봉사활동으로 가족이 2순위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불만을 갖지만 무의식적으로 봉사활동을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이에 대해 자신 또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 즉, 가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생각하게 된다. 한편, 박 도슨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며 “당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무척이나 많았던 것 같다.”면서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막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바쁜 선생님을 도와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어린 박 도슨트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면서 선생님이 되고자하는 꿈을 갖게 했다. 즉, 교육(가이드와 가르침)을 통해 자기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다(Fig. 2).

둘째, 청년시절 직장에서의 업무는 박 도슨트에게 차후 자원봉사자로서 관람객에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즉, 직장인 박 도슨트는 수협중앙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민원인 상대를 통해 봉사자의 자세를 이미 익히고 있었다.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산악회, 성가대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은 그녀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또 다른 신념을 형성하게 한다. 많은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박 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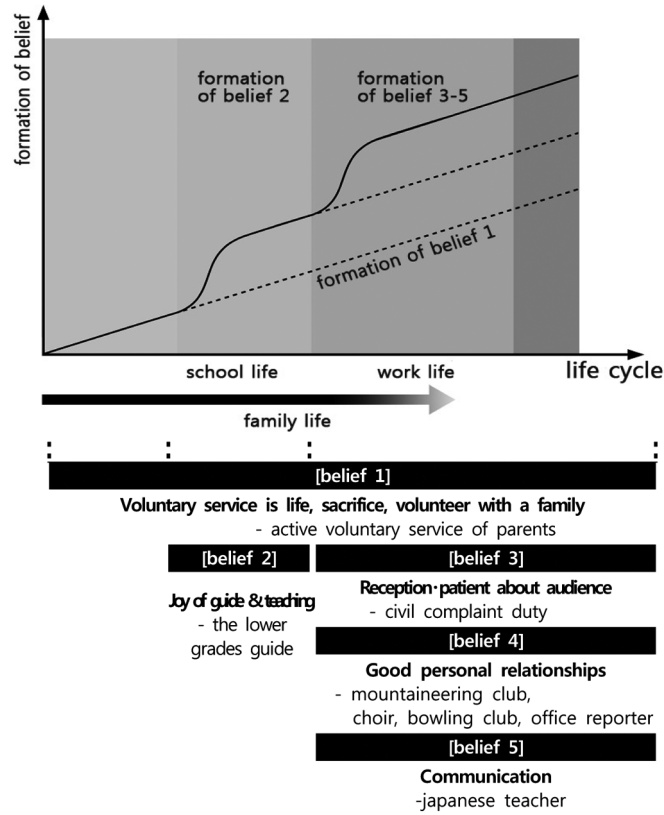


Fig. 2. The formation of belief of volunteer [belief1, 3, 4] and education [belief 2, 5] from life cycle of docent Park.

트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활동의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고 하나 아래 박 도슨트의 인터뷰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과 대인관계의 원만한 형성이 직장동료에게 비취졌기 때문일 것이다.

신입 도슨트가 오면 내가 직접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예요?’하고 물어보고 내 가방에 있는 여러 가지 학습자료들을 꺼내서 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막 주고 싶어요.

한편, 박 도슨트의 의사소통 능력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내 일어강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Fig. 2).

셋째,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는 박 도슨트가 결혼을 하고 육아에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된다. 즉, 박 도슨트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쯤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과학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

동하게 된 계기를 갖는다. “애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S과학관이 개관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뽑는데요. 그 자원봉사자는 가족이 무료입장 이래,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료입장 때문에 한 거예요”라고 한 것처럼 자녀양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교육과 잠시 잊고 있었던 자원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관이라는 과학문화공간을 택하게 된다. 박 도슨트의 과학관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은 단순히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무료입장이라는 약간의 혜택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박 도슨트의 생애에 걸쳐 형성된 신념(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끼리를 찾겠노라)의 반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시작된 박 도슨트의 과학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차후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큰 계기를 맞으면서, 전시물을 해설하는 자원봉사인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다음은 도슨트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인터뷰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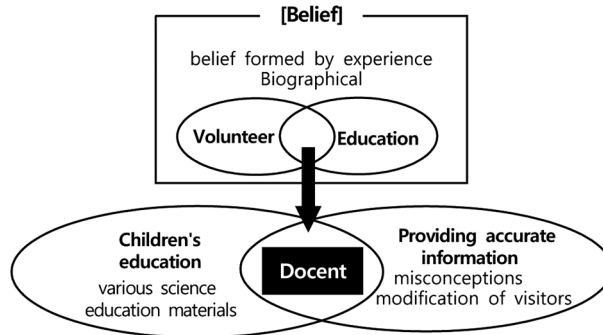


Fig. 3. The motivation to become a docent.

내가 일반자원봉사 때, 전시실에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다 하늘을 날아간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관람객들이 서로. 근데 패널을 보니까 물속에 사는 거야... 공간이 좁아서 매달아 놓은 것뿐인데. 거기다가 전시한 것을 보고 관람객이 잘못알고 가는 게 보이니까. ‘어 뭐! 해설이 필요 하구나’하고 느꼈지 그래서 (지구탄생 영상관에서) 3D 안경을 나눠주고 영상을 3분 30초보여주는 그 동안 가서 (살며시) ‘이거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미있더라고. ‘물속에 사는 거예요’하면서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 도슨트가 도슨트로서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부여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잘못된 정보습득에 대해 바로 잡아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람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운데 재미를 느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 호기심이 유발되면서이다(Fig. 3). 위와 같이 전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박 도슨트의 신념은 그녀를 도슨트 활동으로 이끌게 된다.

도슨트 실천적 지식의 형성

박 도슨트는 과학적 지식의 습득과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시해설 전략을 세우게 된다.

유능한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지(機智)를 발휘하게 되는데 비전공자인 박 도슨트는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자신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채우기 위해 다방면의 경험을 쌓게 된다. 다음에서는 박 도슨트의 전문지식 습득방법을 Elbaz(1981)가 제시한 교사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5가지 내용(교사 자

신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편성한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의 5가지(도슨트 자신에 대한 지식, 전시 내용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 전시해설 환경에 대한 지식)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Table 2). 이는 비행식기관에서의 도슨트와 형식기관에서의 교사는 교수자라는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도슨트는 전시해설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평가되고 이는 과학관의 이미지와 직결됨에 따라 늘 관람객을 위한 ‘좋은’ 전시해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좋은 전시해설을 해야 한다”는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났다. 박 도슨트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시내용에 대한 지식과 전시해설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관찰하고 체험을 하는 등 주로 체득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습득된 지식과 전시관이라는 환경, 사회적 이슈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박 도슨트는 자신의 전시해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관람객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시해설에 치중했지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학관의 건립목적은 도슨트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전시해설의 방향과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박 도슨트는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전시해설을 하고 있었다.

박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중요하지만 간과했던 사항 즉, 과학관의 건립목적은 도슨트가 전시해설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Table 2. Content formation of docent Park's practical knowledge

Components of knowledge	docent Park's belief from docent practical knowledge
knowledge (belief) about docent one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of the docents personal values and goals • knowledge about oneself as an expert • knowledge about her ability in relationships fellow docents and curators
knowledge about exhib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about exhibit content • knowledge about is the type of knowledge that visitors need to know • knowledge about the value of selected content
knowledge about exhibition interpretation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about interpretation method of visitor-customized exhibits
knowledge about science museum construction purp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about the purpose of science museum construction and the necessity to develop
knowledge about exhibit interpretation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about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and cultural around docent Park's • knowledge about the geographical space of exhibition hall and facilities in science museum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정 동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도슨트 실천적 지식의 5가지 구성을 보면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념이 생기고 도슨트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형성되는 사항이 다수 이지만 과학관 건립목적에 대한 지식은 과학관에서 강조를 하지 않으면 도슨트 자신도 아무런 의식 없이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전시해설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동안 실천적 지식형성에 대한 모든 지식 영역을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의식(과학관에서 추구하는 목적 등)을 갖고 전시해설을 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정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박 도슨트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해설과 관련되어 전략으로 나타나고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기존의 지식과 전시해설 실행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좀더 확고하게 형성된다. 박 도슨트의 전략은 과학관의 건립목적과 관람객의 방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다음 3단계로 구성된다. 즉, 각 단계에 실천적 지식이 적절히 투입되어 점차 구체적으로 전시해설이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되면서 차후 이어질 전시해설에 대한 새로운 준비로 이어지고 있었다(Table 3).

전시해설 이전 단계[전시해설 준비 전략]: 한 전시관의 전시해설을 여러 차례 반복 하다보면 전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되면서 전시해설 준비에 부담을 덜 갖게 된다. 특히 다양한 곳에서 전시해설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은 전시관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생기게 된다. 8년 경력의 박 도슨트는 2004년 S과학관에서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현재까지 S과학관의 전시관에서 전시해설을 해 오고 있는 경력자이다. 또한 박 도슨트는 S과학관의 전시해설 뿐만 아니라 I과학관, G과학관, O박물관의 전시해설도 하고 있다.

박 도슨트는 평소 전시해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Table 3. The docent Park's strategies associated with exhibit interpretation

Before Step E.I.	Runing Step E.I.		After Step E.I.
	1. Strategies of exhibition	2. 2. Strategies in post-interpretation	
E.I. preparation strateg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rategies about science museum construction purpose 2. strategies using analogy 3. strategies acquiring through example 4. explanation for interesting story and origin of word about exhibits 5. strategies through own special sto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reetings :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of visitors 2. exhibit interpretation of planning : total exhibit interpretation hours guide 3. education information provision : for children education of parents 4. eye-level exhibit interpretation 5. interact with visitors 6. psyop 7. visitor etiquette guid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rategy of exhibition 2. visitor etiquette guide 3. work journal record

Exhibit interpretation (E.I.)

Table 4. Docent Park's preparation for exhibit interpretation

preparation of docent Park	education conduct about exhibit interpre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t parents visit the science museum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but hardly ever acquire one's knowledge from the visit • Visitors feel that science exhibition difficult for them. So if I explain exhibits with a suitable figure of speech and daily life, visitors would concentrate more on exhibit interpretation so they could understand bette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ent should mention that science museum's exhibition include a school curriculum • for explain a cobweb, docent Park do reference about a spider man in a cartoon film. • docent Park explains ascidians of sea mustard, laver et al. and it is cooked

수집 정리하면서도 전시해설에 있어서 “4~50%는 똑 같이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시해설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미 사전에 학습된 전시해설에 대한 준비에 기반을 두고 관람객의 전시해설 이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과학관에서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해설의 예를 통해 보면, 박 도슨트는 전시물에 흥미를 갖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관람객의 관심사와 관람객에게 노출되었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였다. 과학 전시물에 관해 해설을 할 때, 박 도슨트는 Table 4와 같이 ‘학부모 관람객은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는 점, ‘관람객은 자신의 주변에서 많이 접한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시해설 시 익숙한 사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시해설에 흥미를 갖고 이해를 쉽게 할 것이다.’는 점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전시해설을 했다.

전시해설 실행 단계[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전략]: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 실행 단계에서 나타난 전략수준의 실천적 지식은 전시해설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과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로 구별 할 수 있는데, 이때에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상호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첫째 전시내용 관련 전략들은 전시물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박 도슨트는 Table 5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박 도슨트는 전공자들은 전시 설명을 할 때 어려운 전공단어를 사용하여 설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데 도슨트는 비전공자로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일상용어를 차용하기 때문에 전시물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관람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 등 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람객의 흥미를 얼마나 끄느냐에 따라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의 수는 전시해설 진행 중 유동적이다. 대체로 도슨트들의 전시해설을 관찰하면 전시해설을 시작했을 때와 전시해설이 마무리 될 쯤 관람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는 관람객들은 진행 중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었다. 이러한 관람객의 반응은 박 도슨트의 전시해설 기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 전시해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시내용 외 부차적 전략들은 전시해설을 하는 동안 박 도슨트가 전시해설내용 외에 관람객의 심리적인 면까지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그 소재는 Table 5로 정리할 수 있다. 박 도슨트는 전시해설 시작 전에 관람객과 간단한 인사를 하는 가운데서 관람객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전시해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함으로써 편안하게 관람 및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총 전시해설시간을 안내 함으로써

Table 5. The docent Park's strategies for exhibit interpretation

Strategies of exhibition	Strategies in post-interpretation
• strategies about construction purpose of science museum	• greetings: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of visitors
• strategies using analogy	• exhibit interpretation of planning: guide total exhibit interpretation hours
• explanation for interesting story and origin of word about exhibits	• education information provision: for children education of parents
• explanation for interesting story and origin of word about exhibits	• eye-level exhibit interpretation
• strategies through own special story	• interaction with visitors
	• psyops
	• visitor etiquette guide

Table 6. The docent Park's strategies in post-interpretation

Strategies of exhibition	• Here pull it out to called the children's docents. if you interest in it and come in here, you win a chance to explain the Paleontological [Feb 19, 2011 docent Park exhibit interpretation observation]					
Visitor etiquette guide	Today, there was a child who didn't focus on exhibit interpretation and behaved individually. This type of action made exhibit interpretation hard. Finally docent Park can-not collect handouts including worksheet and sticker. She explained to parents about the situation she ran into, and asked for guided etiquette as a visitor. [field note]					
Work journal record	date of activity	2010.				
	docent			check		
	visitor number	adult		youth		child
	exhibition interpretation time					
	activity content					
	visiter question					
	suggestion					

관람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람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서 전시안내 전시해설 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시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한편, 관람객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계속적으로 흥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하다보면 관람객과 많은 질문이 오고가는데 그 가운데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시해설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박 도슨트는 과학관의 관람예절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관람객 스스로 관람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도슨트는 전시해설은 관람객의 전시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심리적인 면 등 전시내용 외 부차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들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전시해설을 통해 전시물에 관한 내용을 충실이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박 도슨트 전략이다. 전시해설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도슨트와 관람객과의 교감을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위이다. 따라서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시해설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해야 할 것이다.

전시해설 이후 단계[전시해설 마무리와 반성 전략]: 전시해설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난 박 도슨트의 전략은

전시해설 내용과 관련된 전략과 관람 예절에 관련된 전략, 이후 전시해설을 위한 활동일지 기록으로 이로써 전체 전시해설은 마무리 된다(Table 6).

박 도슨트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전시물 전체해설이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관람객의 공동의 관심사가 될 전시물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 스스로의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관람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람객들의 관람 예절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였다. 또한 관람객과의 마무리를 활동일지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더 좋은 전시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에서 나타난 박 도슨트의 전략은 관람객에 대해서는 과학관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문화시민으로써 과학관에서의 공공예절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과, 도슨트 자신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향상된 전시해설을 기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시해설 이후 단계 전략은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과 도슨트 모두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전시해설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의 전문성 확보 방안

8년간의 도슨트 활동을 통하여 박 도슨트는 전문가 원봉사자로서 도슨트 전문성을 형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슨트 전문성의 필요성을 느낀다. 풍부한 과학적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기관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유도하느냐는 건물도 아니고, 전시물도 아닌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도슨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겠다(Park and Lee,

2011). 과학관에서 도슨트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형식기관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듯이 도슨트의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 그 전문성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슨트는 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박 도슨트에 의하면 “관람객을 실질적으로 직접 대하며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들 도슨트이며, “지구과학을 비롯한 과학은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기 쉽거든요. 도슨트로서 전시에서 요구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관람객이 받아들이는 것과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 해 줘야 되거든요”의 동료 백 도슨트 인터뷰에서 말하듯이 기본적으로 도슨트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의 전문성은 과학적 전문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 도슨트와 동료 백 도슨트는 과학은 전문지식으로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관에서의 전시해설은 과학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꾸준한 지식 습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학은 과학기술로, 기상 및 지질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및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도슨트는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박 도슨트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림으로써 동료 도슨트들에게 강조한다. 박 도슨트의 카페 게시글에 의하면 전문적인 내용지식 외에 갈구하는 다른 전문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관람객의 수준과 원하는 만큼의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언어와 화법을 동원**
- 도슨트는 다중을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수준과 관심분야, 관람객의 인원수에 상관없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준비성**

관람객에 대한 전문성은 도슨트의 세 번째 전문성인 효과적인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관람객의 성향이 충분히 파악됨으로써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되고, 학부모 관람객에게는 자녀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결시킨 전시해설 전략을 세우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다. 한편 여가 활용차원에서 방문한 관람

객에게는 과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과 연결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셋째, 도슨트는 효과적인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아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박 도슨트는 한정된 시간에 관람객과 소통을 이끌어내어 과학적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박 도슨트의 카페 게시글에 의하면 “자연사관의 광범위한 내용을 한 시간에 추려 알맞은 수준으로 조율하며, 어떤 관람객이 눈앞에 계셔도 소화 해 낼 수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학습범위”를 파악하는 것, 또는 “단 한명이라도 해설 한다는 원칙 하에 관람객과 해설자의 1:1소통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전문내용지식이나 관람객에 대한 지식 외 다른 해설상의 전략에 대한 지식부분이다. 과학을 전달하는 교수지식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지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지식이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 사용에 있어서 관람객에 따른 적절한 그리고 친근한 용어를 선택하거나 일상의 경험을 예시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아래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박 도슨트는 관람객을 응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공손과 정중, 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 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의 기본은 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미소임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미리 나이가 준비하며 맞이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공손함**으로 안내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도슨트는 자원봉사 형태의 봉사적 기능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도슨트는 남을 위한 봉사의 직업으로 관람객 보다는 낮은 자세로 자신의 손님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관람객에게 응대를 해야 한다.

도슨트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위와 같은 전문성이 갖춰짐으로써 ‘재미와 흥미, 유익함이 전제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마무리 인사말에 서로의 만족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위한 딱 채운 1시간의 해설’이 이뤄진다는 박 도슨트의 이야기처럼 관람객과 도슨트 자신이 만족하는 전시해설이 완성된

다. 이러한 전문성을 위해 후배 도슨트에 대한 선배 도슨트로서 박 도슨트의 역할은 ‘나눔과 공유’의 철학으로 표현된다.

박 도슨트의 후배양성은 오프라인(off line) 방법으로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스크랩 자료, 학습자료, 전문서적에 대한 정보 등을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박 도슨트로 부터 학습 교구를 받은 후배 도슨트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학습교구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보였고, 별자리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며 별 자리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너무 좋은 자료를 얻게 되었다.’고 흡족해 했다.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은 후배 도슨트와 선배 도슨트로서의 박 도슨트 사이에 효과적인 피드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on line)을 통해 후배 도슨트와 소통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도슨트간의 소통을 하고 있었다.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 전문 서적 등 다양하다. 그 중 선배 도슨트로서 후배 도슨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향력은 다른 어떠한 교육 방법보다도 그 효과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배 도슨트로 부터 제공되는 정보 즉,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선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교수방법으로 도슨트 활동에 실질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박 도슨트의 선배로서의 역할은 차후 후배들이 선배가 되었을 때 또 다른 후배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 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

도슨트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현재, 꾸준히 도슨트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과학관 일지라도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 도슨트를 비롯해서 동료 도슨트들은 좀 더 추가적인 교육과정 및 체계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었다. 각 단계별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추가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기본 소양교육: 과학관의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전시물과 관람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자원봉사 자세로 과학을 알기 쉽게 해설(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직업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이다. 그 교육은 자원봉사자로서의 몸가짐, 친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으로 도슨트 활동을 위한 기본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일부 과학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박 도슨트는 기본 소양교육을 받지 못한 동료 도슨트들에게 자원봉사자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도슨트 활동 카페에 글을 올리기도 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자원봉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관람객이 원하는 관람객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박 도슨트가 위와 같이 동료 도슨트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갖춰 있지 않으면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하는 등의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주 담당자는 과거 도슨트(=전시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기본소양 교육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소양교육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소양교육은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을 했지만은 나중에 양성을 하고나서 애기를 들어 보니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돈벌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 지원자들은 전문지식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슨트를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별을 하지만 기본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관람객을 응대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지식 교육: 도슨트는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에 국한된 교육만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Park et al., 2009), 실제 현장에서 도슨트는 이 외에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첫째,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은 전시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은 교육과정 동안 활동에 필요로 하게 될 전문지식 모두를 전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해설시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보다는 과학관의 건립목적이 충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 도슨트 외 과학관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주 담당자: 양성교육이라는 거는 양성교육 안에서 그 사람이 해설사(=도슨트)로서의 활동을 하는 모든 필요한 지식을 물론 100%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거는 어려운 거구요. . . . [전문지식 습득방법 교육]

박 도슨트: ‘과학관이 홍보관이고 생물이 자원이다.’는 개념으로 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걸 깜빡한 거야 그니까 나중에 ‘맞아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나중에 생물이 자원에 활용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 . . [과학관의 목적 반영]

최 학예사: 도슨트하다 보면 사건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전시해설 하다가 관람객들한테 나오는 질문인데 그것들을 끊는 게 필요하거든요. 끊고 정리하는 게 필요 한데, 그러려면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션(=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없어요. . . . [과학관의 목적 반영]

위 인터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앞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 교육은 큰 테마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슨트 스스로가 전시물에 관한 내용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을 교육시키고,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충분히 인식시켜 관람객의 관람목적과 과학관의 건립목적에 충분히 반영되면서 전시해설이 일관성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람객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다. 도슨트는 효과적인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 관람객의 수, 연령, 관심사, 관람목적 등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관람객의 성향 파악이 안 되면 도슨트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전시해설을 해야 될지 난감해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초임 도슨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다음은 경력 1년 미만인 초임 조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어른 위주로 해야 될지 어린이 위주로 해야 될지... 아이 위주로 하면 어른에게는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아~ 저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겼나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또 어른 위주로 하면 아이가 또 막 힘들어하고 하나까 **조울하는 게... 아직 경험이 짧다보니까**

위 인터뷰에서 초임 도슨트는 전시해설 수준 조절이 어려워 전시해설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관람객 성향 파악을 위해 박 도슨트는 “관람객의 눈을 마주하고 관람객의 마음을 읽으며 내가 관람객이었을 때를 상기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해설을 준비하고 연구한다.”고 이야기한다. 박 도슨트의 관람객 성향 파악은 처음 관람객과의 가벼운 인사를 통해서



Fig. 4. The first meeting of audience.

이루어진다. Fig. 4와 대화는 박 도슨트의 관람객과의 첫 대면이다.

박 도슨트: 이쪽으로 잠깐 모여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관람객(어린이): 시흥시
박 도슨트: 시흥시에서 왔어요? 어! 생각 보다는 안 멀다 그치? 선생님은 고양동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관람객(학부모): 부천이요.
박 도슨트: 이곳은 탐구학습에 참 좋은 곳이에요.

위 관찰에서 박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사는 곳을 물어보고 있었으나 그 짧은 인사 속에서 관람객의 구성을 보고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왔음을 파악한다. 관람객의 성향 파악 후 박 도슨트는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전시물들의 내용이 아이들의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전시해설의 수준을 조절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다. 도슨트는 패널을 통해 제공되는 과학적 지식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견해를 다음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았다.

연구자: 쉽게 설명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동료 박 도슨트: 기초과정에는 필요해요. 전시 도슨트나 해설을 처음하는 특히 과학 쪽의 해설사라고 한다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중략>

연구자: 그것을 박물관 측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동료 박 도슨트: 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박 도슨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해줄만한 여력도 없고(천절교육 정도면 된다고 이해하는 정도의 인식 때문)**

위 인터뷰를 통해 도슨트 입문자가 과학이라는 전문적 지식을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시키기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교육은 없었고 도슨트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해설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박 도슨트는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해줄만한 여력도 없고”라고 이야기 하면서 약간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다.

현장실습 교육: **앞선 기본소양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전시해설로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이 실시된다.** 박 도슨트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전시해설 동안 이루어질 동선,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이해를 돕기 위한 몸짓, 관람객을 배려하는 행동 등이 교육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강조하였다. 박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학예팀에서는 지식을 체크하고? 우리는 노하우를 체크하는 거지 동선부터 해서 자세, 손가락 이런 거부터... <중략> 우리는 그거를... 사실 그게 맞다고 봐요. <중략> 성당에서의 대모, 대부처럼 하는 거지. 1기는 2기를 양성하고

위 인터뷰를 통해서 박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의 역할이 크고,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이 효과적인 현장실습교육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도슨트는 “학예사들은 전문적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전시해설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슨트가 현장실습을 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배 도슨트가 멘토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딱혀 있다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었다.

평가: 도슨트는 일련의 교육을 이수한 후 도슨트 활동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이 학예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정량적 기준은 없구요. 기본적인 자격이 인정 되면 통과해요. 뭐 이거이거이거는 해야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략> 미흡하다 싶으면 보충해서 재 테스트 또 부족하면 다시 재 테스트를 거쳐 3회까지는 다시 시험 볼 기회를 드리는 거고

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슨트 평가는 정성적 평가로 실시되고 이 평가는 도슨트로서 활동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좀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목적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외 과학관의 평가에 대한 방법은 과학관과 많은 교류가 있는 과학교육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물어봤죠. 거기도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들도 들어온다고 그랬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일정도면 평가가 끝났다 하는 확실한 거는 없었는데, 어떻게 패스시켰냐고 물어봤을 때 누가 담당을 하나면 위에 있었던 도슨트들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OK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데**

위 인터뷰를 통해서 국외의 과학관 도슨트 평가도 국내와 같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평가에 있어서 선배 도슨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 국내의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 박 도슨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가 회장일 때에는 1기가 참관을 하는 거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저하고 저의 나름대로 멘토이신 분이랑 두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뭘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자본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어. 그냥 참관해서 자리만 해도 되는 거.** 그런데 3기부터는 (담당이 바뀌며)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박 도슨트는 평가에 있어서 선배 도슨트의 참관을 원하고 있었다. 참관을 함으로써 선배 도슨트는 학예사들이 놓칠 수 있는 평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선배 도슨트는 선 경험자로서 후배 도슨트들의 실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이미 경험하여 더 발전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과학관에서는 담당 학예사가 평가하고 통과시키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운영관리 현황: 도슨트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관으로서는 처음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고 박 도슨트가 처음 활동한 과학관의 관리체제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 과학관에서 도슨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학예사와의 인터뷰이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재발급을 하는데요. 도슨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증을 받고 1년 동안 활동에 대해 평가를 했을 때 매번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하고 **중간에 하는 계속적**

training	definition	period	note
new-comer	docent applicant	three months	when not passing, re-test
		a month	exhibition interpretation visit of superior docent
		eight months	issuance of docent certificate after activity of 8th month
regular	the annual education for docent activist	every year	2 hours/once, external expertise
come-back	to restart after time off	nonscheduled	when not passing, re-test - three times limited
reeducation	reeducation for lacking of docent activity		

Fig. 5. The management system for docent operation.

인 교육, 세미나, 답사 같은 활동들을 잘 참여 하면 다시 1년 후에 그 해에 해당되는 도슨트증을 드리는 거예요. 임명장과 함께 매년 발급을 해줘요.

위 인터뷰에서 보여진 질적관리와 심화교육은 안이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도슨트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는데 이런 관리를 위해 과학관에서는 도슨트 운영관리(Fig. 5)가 마련되어 있었다. 과학관 도슨트 운영관리(Fig. 5)에서는 정기적 심화교육의 실시와 참여권고 및 도슨트 활동 의무시간을 정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중도 휴직자 등을 위해서 적절한 보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5와 같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관이 있는 반면에 아직 많은 과학관이 도슨트 운영에 대한 체계가 잡히질 않아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다소 실망을 안고 있는 동료 최 도슨트와의 인터뷰이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관에서 선생님(=도슨트)들끼리 하시거나... 저희 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동료 최 도슨트는 처음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 전시해설에 필요한 정보는 동료 도슨트들이 모여 스터디를 통해서 습득하고, 실제 과학관에서는 심화교육과정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박 도슨트는 “과학관 담당자가 도슨트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과학관 자체에서도 도슨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과학관에서는 18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성교육의 미흡으로 절반이라는 숫자

가 포기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도슨트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한 분야인 생애시적 방법으로 경력 8년차인 박 도슨트의 삶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 열정을 가진 도슨트 지원자 선발이 필요하다. 도슨트는 교육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선발에 있어서 교육 경험자를 선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 교육활동 동기와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실천적 지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도슨트는 자신의 주변을 정보원으로 두고 전시해설에 필요한 자료를 체득하고 전시해설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습득한 지식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더욱 탄탄히 하고 확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과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형성이 필요하다. 도슨트는 전시관이라는 넓은 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을 해설하는 교육자로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시해설을 위해 스스로 체험, 방문, 전문가 면담, 수강 등 다양한 곳에 정보를 두고 학습함과 동시에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문성(과학적 전문내용에 대한, 관람객에 대한, 전시해설 기법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을 형성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현장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도슨트에게 있어서 전문성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넷째, 체계적인 도슨트 양성교육과정·평가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도슨트로서의 신념을 갖고 꾸준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도슨트만의 전문성이 잘 발휘되면서 전문지식(전시물, 관람객, 전시해설기법) 교육이 하나로 융합되어 전시해설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실습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에 있어서도 학예사와 경력 도슨트가 함께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질적 관리 또한 필요하다. 정규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화교육 실시와 타 과학관 등 탐방, 그 외 도슨트 자체적으로 워크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도슨트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꾸준히 학습을 하게하는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도슨트의 질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정착은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요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도슨트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슨트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도슨트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슨트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이 도슨트 교육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References

- An, H.S., Park, S.H., and Lee, C.Z., 1993,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s. *Journal of the Korea Earth Science Society*, 14, 135-151. (in Korea)
- Bae, B.K., 2006, A study for cultivation of experts in museum education and activation of museum education. *Journal of Kyoung-Ju Historical Society*, 24-25, 449-482. (in Korea)
- Chang, H.S. and Choi, K.H., 2006, The effects of field trips on middle school students' preference and awareness of science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6, 330-341. (in Korea)
- Choi, K.H., Chang, H.S., and Lee, H.J., 2006,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use of educational programs in science museums.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5, 331-337. (in Korea)
- Cox-Peterson, A.M., Marsh, D.D., Kisiel, J., and Melber, L.M., 2003, Investigation of guided school tours, student learning, and science reform: recommendations at a museum of natural histor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 200-218.
-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Curriculum Inquiry*, 11, 43-71.
- Jeong, G.J., et al 17, 2010, An introduction to science museum. *Nation Science Museum*, Daejeon, Korea, 395 p. (in Korea)
- Jeung, S.J., 2003, Investigation of teacher's recognition about science field trip and application (electric energy) -electricity museum-.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95 p. (in Korea)
- Jo, H.I., 2006, Analysis of museum education program and a study on the educator-train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si, Korea, 114 p. (in Korea)
- Kim, H.B. and Kim, C.J., 2005, Education programs of natural history museum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secondary students.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1999 Fall Meeting collection of dissertations, 302. (in Korea)
- Kim, H.W., 2004,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cience museum and school curriculum.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09 p. (in Korea)
- Kim, S.H. and Song, J.H., 2003,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s in science centers and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exhibits -in the case of 3 science center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3, 544-560. (in Korea)
- Lee, S.K., Choi, J.E., Shin, M.K., Kim, C.J., Lee, S.K., Im, J.Y., Byun, H.S., and Lee, C.Z., 2004,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rograms in major natural history museum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4, 357-347. (in Korea)
- Osborne, J. and Dillon, J., 2007, Research on learning in informal contexts: advancing the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9, 1441-1445.
- Park, E.H., Yi, B.J., Park, J.Y., and Choi, Y.J., 2009, Pedagogical study on the explanation as a method of museum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3, 97-111. (in Korea)
- Park, Y.S. and Lee, J.H., 2011, Analyzing the status quo of docent training program and searching its development direction in science museu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32, 881-901. (in Korea)
- Rennie, L.J., Feher, E., Dierking, L.D., and Falk, J.H., 2003, Toward an agenda for advancing research on science learning in out-of-school settings. *Journal of*

-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 112-120.
- Shin, M.K. and Lee, C.Z., 2003, Investigation of exhibit characteristics at natural history museums. Journal of the Korea Earth Science Society, 24, 281-289. (in Korea)
- Song, K.H., 2010, A study on the optimizing direction for promoting effect of the exhibition communication at natural history museum. Master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54 p. (in Korea)
- van Driel, J.H., Beijaard, D., and Verloop, N., 2001,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form in science education: the role of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 137-158.
- Yoon, S.H., 2008,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ducation program for biodiversity in natural history museum. Ph. 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88 p. (in Korea)

2013년 2월 19일 접수
2013년 3월 26일 수정원고 접수
2013년 4월 26일 채택